

Crisis of trust of journalism in France: Cracks in journalistic institutions and professionalism, and the impact of social movement*

Jin woo Park** and Soel ah Kim***

Konkuk University and Hongi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risis of trust of French journalism in the context of a global decline of media credibility. First of all, in the process of a huge social movement called the ‘yellow vest’ movement that started in 2018, distrust of the French journalism was expressed in an extreme form. This study examines some external factors in terms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French journalism and the public’s long-standing ‘criticism of journalism’. Specifically,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quantitative indicators of trust of French journalism which were shown in Digital News Report published by the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Next, it examines the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formation process of French journalism and public distrust that emerged along with it. And specifically, the structural crisis-economic crisis, digital transformation and intensification of competition, and deterioration of quality problems etc.-of the French journalism exposed in media coverage on social movement in 2018 is review in relation with the working process or ‘routine’ of actual news produc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asserts that the various aspects of internal rifts in French journalism system, as well as external shocks (the influence of social movements), are a key factor in explaining the recent decline of trust in French journalism.

Keywords

French Journalism, Journalism Critic, Professional Journalism, Routine of news production, ‘Yellow Vest’ Movemen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21 Hongik University Research Fund.

** First Author. An Associate Professor, Mass Communication, Konkuk University.
Email: jinwoo421@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A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Hongik University. Email: soelah@hongik.ac.kr

프랑스 언론의 신뢰도 위기: 저널리즘 제도의 내적 균열과 사회운동의 영향*

박진우**·김설아***

건국대학교·홍익대학교

요 약

이 연구는 전 세계적인 언론의 신뢰도 하락이라는 상황에서, 한국 언론과 유사한 형태로 심각한 신뢰 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 언론에 대하여 고찰한다. 2018년부터 시작된 ‘노란 조끼’ 운동이라는 거대한 사회운동의 과정에서 프랑스 언론에 대한 불신은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었다. 이 연구는 이를 프랑스 언론의 역사적 발전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대중들의 오랜 ‘언론에 대한 비판’의 구조라는 측면과 결합하여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간행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 나타난 프랑스 언론의 신뢰도의 양적 지표를 먼저 살펴본다. 이어 프랑스 저널리즘의 역사적·제도적 형성 과정 및 이에 발맞추어 등장한 대중적 불신의 경로를 검토해 본다. 그리고 2018년 사회운동에 대한 보도 과정에서 노출된 프랑스 언론의 구조적 위기 - 경제적 위기, 디지털 전환과 경쟁 심화, 퀄리티 저하 - 가 실제 뉴스 생산의 작업 과정에 미친 영향 문제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프랑스 언론을 향한 외적 충격(사회운동의 영향) 못지 않게, 저널리즘 제도 내부적인 균열의 다양한 양상들이 최근 프랑스 언론의 신뢰도 추락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인임을 주장한다.

주제어

프랑스 저널리즘, 저널리즘 비평, 전문직주의 저널리즘, 뉴스 생산 관행, ‘노란 조끼’ 운동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주저자,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부교수. 이메일: jinwoo421@gmail.com.

*** 교신저자, 홍익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조교수. 이메일: soelaha@hongik.ac.kr.

I. 문제 제기

언론의 신뢰도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한국이나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믿을 만한 정보(trustworthy information)’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범위의 논쟁 이슈이다. 디지털 뉴스 생태계에서 ‘믿을 만한 정보’의 유형, 생산, 그리고 유통 전반에 대한 직업적 언론인들과 대중들의 인식 사이에 현저한 격차가 벌어지면서 언론의 신뢰도 저하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Hanitzsch, van Dalen & Steindl, 2018). 더불어 이는 특정 사회의 환경 맥락, 그러니까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 성숙도, 언론 자유의 수준, 특정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차별 요인들(예컨대 음모론,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의 양상 등)의 정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수치상으로 보건대, 지난 10년 간 언론 신뢰도를 조사하는 전 세계의 기관들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공통적으로 신뢰 지수의 하락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과 같이 전통적으로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던 국가들에서도 하락 추세가 나타날 뿐 아니라(Reuters Institute, 2021), 미국이나 서유럽 주요국처럼 서구 민주주의 전통에서 남다른 위상을 가진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Hanitzsch, van Dalen & Steindl, 2018). 국내의 사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국내에서는 특히 옥스퍼드대학교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Digital Journalism)의 연례 조사가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한국은 이 조사에 2016년부터 참여했는데, 그 이듬해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으로 국가간 언론 신뢰도 비교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박아란·이소은, 2020; 이소은·오현경, 2021). ‘꼴찌’라는 다분히 충격적인 결과 때문인지 곧 이에 대하여 언론계 내외부의 무수한 비판과 조롱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로 인해 현재 한국 언론이 안고 있는 보도의 품질, 정파성,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 등과 같은 여러 이슈들이 한층 학술적이고 실천적인 쟁점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다(배정근 외, 2021; 오현경, 2022).

이 연구는 프랑스 언론에 대한 프랑스 대중들의 신뢰도 하락이라는 문제를 다룬다. 프랑스가 검토 대상인 이유는 우선, 앞서 언급한 ‘4년 연속 최하위’의 한국 언론 못지않게 프랑스 언론 또한 자국 대중들의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하였고, 그 결과 2019년부터 ‘2년 연속 최하위에서 2등’이라는 기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로이터 연구소의 보고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프랑스에서 2018년 11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사회운동 ‘노란 조끼(Gilets jaunes)’ 운동의 보도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고 간략하게 지적하고 있다(박아란·이소은, 2020). 같은 시기 프랑스의 저널리즘 연구자들도 사회운동과의 관련 속에서 프랑스 언론의 신뢰도 추락 문제를 새롭게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언론학자 클레르 블랑댕(Claire Blandin)은 ‘언론인에 대한 혐오(détestation)’가 20세기 이후의 프랑스 언론사 전반에 걸쳐 지속된 현상이었고 그 정점에 2018년 노란 조끼 운동이 있다고 분석한다(Blandin, 2019). 여기서 나아가 노란 조끼 운동 자체가 “언론에 대한 불신을 획기적으로 한 단계 진전시킨 계기”라는 평가도 찾아볼 수 있다(Lévrier, 2019). 시위 과정에서 다수의 시위대가 언론사 건물에 진입하여 뉴스 제작을 중단시키고 언론인들에게 린치를 가하는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이미 1968년 5월의 학생운동 당시를 능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 그리 단순하게 언급될 문제가 아니다. 격렬한 사회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언론이 어떤 형태로든 수용자 대중이 아닌 권력을 가진 ‘누군가’를 위해서 의제를 수립하고 유지시킨다는 인식은 프랑스에서도 역사적으로-멀리는 68혁명이나 1995년 겨울의 대파업, 가까이는 2016년의 연금개혁 파동에 이르기까지-무수히 많은 국면에서

관찰되었던 통념이다. 하지만 이처럼 일회적인 사건의 영향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전 세계적인 신뢰도 하락의 추세, 특히 디지털 전환 미디어 생태계의 도래와 같은 환경 요인이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사회운동이 대중들의 불신을 폭발시킨 방아쇠임은 분명하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오랜 불신의 축적 과정 또한 고찰해야만 한다. 프랑스에서도 다수의 연구들은 이미 2010년대부터 대중의 언론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Leteinturier & Mathien, 2010). 이러한 불신은 무엇보다 언론인들의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적 지위 자체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었던 상황, 그리고 특히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이들의 직업적 정체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게 된 상황들에서 유래한 것이다(Mathien, 2009).

이 연구는 이처럼 극단적인 불만 표출로 이어지기까지 프랑스 언론계 내에 축적되어 가던 불신의 구체적인 양상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문제의 초점을 보다 언론계 내부의 구조와 언론을 둘러싼 사회적·제도적 요인에 맞춰 보고자 한다. 만약 대중들의 언론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누적된 것이라면, 일차적으로 프랑스 저널리즘의 역사에서 형성되었던 특유의 구조적 현실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근저에는 물론 프랑스 언론계가 공유하는 것으로 ‘상정된’ 직업적 가치나 실천 관행, 나아가 그것을 반영한 전문직주의 제도의 변화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Kunelius, Baisnée & Splendore, 2020). 그리고 이를 보다 상세히 확인하기 위해 ‘노란 조끼’ 운동의 과정에서 나왔던 언론에 대한 비판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운동에 대하여 프랑스 언론이 보여준 보도 태도에 내재되어 있는 현장 관행과 전통의 문제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대중들이 제기한 ‘부패한 언론인’에 대한 비판적 언어들을 통해 현 단계의 프랑스 언론이 직면한 대중적 불신의 실체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

II. 프랑스 언론의 신뢰도 추락 : 실증적 조사 자료 검토

프랑스는 옥스퍼드-로이터 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 1회 조사(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 조사는 매년 그 조사 대상국을 확대해 왔는데, 2020년 조사에서는 총 40개국, 그리고 2021년 조사에서는 46개국으로 늘어났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의 실제 현장 조사는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 의 형태로 매년 1~2월에 진행된다. 2020년 조사에서는 총 40개국의 80,155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프랑스 쪽의 조사 대상은 2,038명이었다. 조사 대상은 디지털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 연령, 거주지를 고려한 할당 표집 방식으로 선정된다(박아란·이소은, 2020).

‘노란 조끼’ 운동이 한창이던 2019년 초에 조사되어 그 해 6월에 발표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9>에 의하면, 프랑스인의 24%만이 언론(미디어)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조사에서의 수치인 35%보다 무려 11% 포인트가 줄어든 것이다. 2019년 조사의 경우 대다수 국가에서 평균 2~4% 정도 신뢰도 수치가 낮아지긴 했으나, 프랑스의 경우는 그 하락 폭이 매우 큰 편이었다. 이는 이웃 국가인 영국(40%)이나 독일(47%)이 같은 시점에 오히려 신뢰도 수치가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그 결과 프랑스는 언론 신뢰도 조사 대상 38개국 중에서 37위에 위치하였다¹⁾.

이듬해인 2020년 조사에서도 프랑스의 응답자들은 23%만이 언론을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역시 그 해의 신뢰도 1위를 기록한 포르투갈 및 핀란드의 수치(5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프랑스는 2년 연속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였다(조사 대상

1) 38위는 한국(22%)이었다.

40개국 가운데 39위였는데, 40위는 한국(21%)이었다. 2021년에 와서도 그 추세는 계속되었다. 46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프랑스 응답자의 30%만이 ‘언론을 신뢰한다’고 응답하였을 뿐이다.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20년 글로벌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해 조사에서는 모든 나라에서 언론에 대한 신뢰 응답의 절대 수치 자체가 10% 포인트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전년보다 7% 포인트 상승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30%라는 수치는 조사 대상 46개국 중에서 공동 44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 해에는 미국이 29%로 최하위를 차지하였다²⁾(Reuters Institute, 2021).

이 문제와 관련하여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이 자체적으로 남긴 평가는 다음 세 가지이다(박아란·이소은, 2020). 첫째, 프랑스의 뉴스 신뢰도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노란 조끼 시위를 둘러싼 여론의 분열과 이에 대한 언론 보도 때문이다. 둘째, 매체 유형별로 지역신문(62%), 공영방송(France Télévisions, France Info)(58%), 일간지 <르몽드>(56%)의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보수·극우적 성향의 민영 뉴스 채널인) BFMTV(42%)와 (중도·진보 성향의 인터넷 언론) <허핑턴포스트 프랑스>(39%)의 신뢰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TV를 통한 뉴스 이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TV에 대한 대중들의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마지막 셋째, ‘노란 조끼’ 시위 이후 소셜 미디어를 통한 뉴스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사정은 2021년 조사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뉴스 신뢰도라는 측면에서도 팬데믹 위기 국면에서 여전히 지역 일간지, 공영방송의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뉴스 채널인 BFMTV는 가장 불신도가

2) 신뢰도 조사에서 항상 최하위권에 나란히 위치하던 프랑스의 ‘오랜 동반자’였던 한국은 2021년 32%로 46개국 중 38위로 뛰어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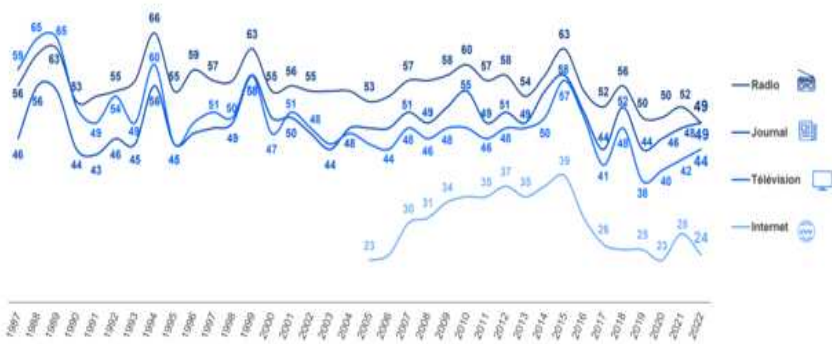
높은 매체로 꼽혔다(Reuters Institute, 2021). 다만 2020년에는 ‘노란 조끼’ 운동의 영향을 대신하여 팬데믹과 이에 따른 전면 봉쇄(lockdown)라는 새로운 상황을 겪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인들의 뉴스 미디어 이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TV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미디어 소비를 대신한 디지털 뉴스의 소비가 급속히 확대되었다³⁾.

프랑스 대중들의 언론 불신의 양상을 보여주는 실증적 지표는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론조사기관 칸타 TNS(Kantar TNS)와 일간지 <라크루아(La Croix)>가 1987년부터 매년 수행하고 있는 언론 매체의 공신력(credibility) 조사에서도 그 수치는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2022년 1월에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신문이 전한 바가 현실과 거의 혹은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49%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라디오의 경우는 49%, TV는 44%, 그리고 인터넷은 24%만이 그렇다는 응답을 얻었다(Kantar/La Croix, 2022). 팬데믹 기간의 대규모 사회적 봉쇄 조치를 겪은 후, ‘팬데믹 관련 뉴스의 신뢰도’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긍정적(44%)인 응답과 부정적(43%)인 응답의 비중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 것도 눈에 띈다. 여기서도 ‘비전문가들에게 지나치게 주요보도의 비중이 치우친 것’(73%, 복수 응답), ‘지나치게 선정적인 보도’(66%) 등에 대한 비판이 높게 났다. 칸타 TNS 조사는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여러 매체들 간의 공신력(credibility) 비교 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신뢰도(trust) 개념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은 많지 않다(오현경, 2022). 그렇다 해도 장기적으로 여느 매체를 막론하고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매년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2015년을 전후하여 그 하락의 폭이 매우 커졌고,

3) 2021년 5월 현재 일간지 <르몽드>의 판매부수는 일일 평균 10만 부를 간신히 넘어서는 수준으로까지 추락했지만, 팬데믹 국면을 거치면서 디지털 가입자의 수는 3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일간지 <르피가로>의 디지털 가입자 역시 20만 명, 독립 인터넷 언론인 <메디아파르트>의 가입자 수는 21만 8천 명으로까지 늘어났다(Reuters Institute, 2021).

특별히 2019~20년에 노란 조끼 운동의 영향으로 그 하락 폭이 다시 커졌다는 점은 충분히 식별 가능하다.

그림 1. 프랑스의 언론 신뢰도 장기 조사(1987-2022)



* 출처 : Kantar/La Croix (2022).

이러한 실증적 조사 자료에 관한 언급을 마치면서, 특별히 사회운동과 언론 신뢰도의 관계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겠다. 칸타 TNS 조사에서 응답자의 33%만이 노란 조끼 운동 보도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의 67%는 ‘언론이 사건을 과장하고 드라마화했다’는데 동의했고, 또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언론이 극단적 견해를 표현하는 사람들에 대해 너무 많이 보도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Brulé, 2019). 현재 프랑스 언론 신뢰도 추락이 2018년 노란 조끼 운동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러한 조사 데이터 속에서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Anthéaume, 2019; Lévrier, 2019). 이는 사회운동을 겪으면서 미디어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들이 대중들 사이에 증폭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Ⅲ. 프랑스 언론의 구조 변동과 언론 불신의 역사적 경험

이 장에서 살펴볼 프랑스 저널리즘 제도 자체의 역사적 전통과 구조적 변동의 양상은 오늘날 프랑스 언론이 직면한 신뢰도 추락 현상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내적 요인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프랑스 언론 특유의 정치성·‘정치인과 언론인의 특수한 관계’의 문제,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독립성과 전문직주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배경에서 형성되었던 언론 불신의 양상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달리 말해 프랑스 저널리즘이 제도적으로 기대어 형성되어 왔던 그 오래된 구조적 양상에 대응하여 대중들의 언론 불신과 비판 역시 오랜 시간 속에 형성되어 왔다는 의미이다. 더불어 저널리즘 제도 자체의 균열 과정에서 언론에 대한 불신 역시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 저널리즘 제도의 형성과 균열 : 전문직주의와 엘리트주의, 언론인과 정치인 관계의 진화

먼저, 프랑스에선 오랫동안 ‘언론에 대한 불신’이 일반적으로 ‘언론사’라는 조직보다는 ‘언론인’ 개인들을 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시작해 보자. 이는 저널리즘이라는 조직적 활동에 대한 평가를 담게 되는 신뢰(trust) 개념이 역사적으로 언론사 조직에 대한 신뢰(혹은 언론사의 ‘공신력(credibility)’)와 동일시되던 보통의 양상과는 몹시 대조적이다(오현경, 2022). 이는 프랑스에서 언론인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방식 자체가 여타 서구 국가들과 조금 달랐기 때문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프랑스 저널리즘이 현재에까지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 구조적인 양상에 대한 역사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 중 하나는 저

널리스트라는 전문직의 출현, 그리고 전문직 규범의 형성 과정이 지닌 양상이며, 다른 하나는 그 속에서 대중들이 끊임없이 표출해 왔던 언론(인)에 대한 불신-즉 ‘권력자들의 공모자’라는 관점-이라는 역사적 양상일 것이다.

우선 20세기 이후 프랑스 저널리즘이 형성되었던 사회적·제도적 맥락, 그리고 그 속에서 언론인이 스스로에게 만들어낸 직업적 정체성에 관한 이슈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0세기 프랑스 저널리즘 발전의 특징은 무엇보다, 19~20세기 정치적 변화와 밀접히 관계되어 형성되어왔던 저널리즘의 ‘정치성’과의 전면적인 단절에 대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Kunelius, Baisnée & Splendore, 2020). 이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정파적, 정당중심적 저널리즘 전통과의 단절, 1941년 독일군에 의한 점령과 전쟁의 경험, 그리고 이후에 이어진 레지스탕스 정치의 유산 등의 요인을 통해 설명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널리스트라는 새롭게 형성된 직업의 정체성이 정부의 언론 통제 가능성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미디어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그 속에서 과거로부터 내려온 정치성의 특정한 방식, 즉 ‘정치인-언론인’이라는 상층 엘리트 계급이 주도한 ‘엘리트 저널리즘’이라는 전통에서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프랑스 언론인들의 직업 정체성 형성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이루게 되었다.

언론학자 카시아프(Kaciaf, 2013)는 이 문제를 프랑스의 ‘전문직주의 저널리즘의 역사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여기서 그가 핵심적인 변인으로 주목한 것은 언론인과 정치인의 관계 설정 문제였다. 이는 크게 3개의 시기, 또는 단계로 설명된다.

첫째는 언론인과 정치인의 구분 자체가 사실상 없었던 시대로, 이른바 ‘드콜 시대(1946-1970)’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제4공화국(1945-58) 당시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의회 보도 중심이라는 정치 저널리즘의 이데올로기적 강력함이 발휘되던 시기였다. 정치적 의견을 전달하는 정

치 칼럼니스트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하였는데 이들은 스스로를 ‘정치적 행위자’로 정의했다. 그리고 이들이 차츰 산업적인 규모를 키워나가던 제도권 언론계의 리더십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둘째는 언론/정치의 상호 결속이 한층 심화된 시대(1970-1984)이다. 이 시기는 언론 산업의 성장 국면에서 저널리즘이 자신의 정체성을 한층 짙은 정파적 배경(**militant background**) 속에 자리 잡게 한 시대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시기에 나타난 특징적인 변화가 있다. 즉 이 시기부터 유사한 형태의 고등교육(대학 및 일부 그랑제콜)을 이수한 언론인과 정치인의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언론인과 정치인 집단의 사회적·교육적 배경이 한층 동질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언론계가 이 시기에 내세웠던 ‘독립성’의 가치가 사실 과거처럼 정치인과 일체화되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양자 관계가 근본적으로 대립적인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와 더불어 독립적 전문직의 가치와 제도는 언론인의 정체성으로 한층 더 뿌리 깊게 정착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1968년 사회혁명에 따른 저널리즘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지고, 내부적으로는 전문직의 제도적 관행(기자협회, 기자윤리강령 등)의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셋째는 1985년 이후의 시기로, 점차 ‘언론과 정치의 분리’가 시작된다.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시장 경쟁이 저널리즘 환경에 도입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언론계 내부의 세대적·계급적 분열의 출발점이었다. 언론인의 지위가 비록 법적으로 독립적이고 문화적으로는 동질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론 산업 자체의 위상 하락과 함께 내부의 계급적 분열은 점차 커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언론인 채용 방식도 과거의 동질적인 ‘학벌’ 위주의 관행을 벗어나 점차 다양해졌다. 특히 1990~2000년대를 지나면서 저널리즘 스쿨에서 교육받은 세대가 기자 직종에 대거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세대는 과거와는 달리 정치

인들과 거의 아무런 연고가 없었기에, 당연히 정치인과 언론인은 분리되어야 하고 정치와 저널리즘의 장(field) 역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이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저널리즘의 장에서가 아닌, 정치적 장에 편입된 일부 정치 저널리스트들”(Le Bohec, 2000)을 문제 삼는 ‘언론인의 전문직 신화 비판’이 전면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Bourdieu, 1994)가 지적한 대로 ‘저널리즘의 패권(l’emprise du journalisme)’이 한층 커지면서 이로 인해 정치적 장(political field)이 약화되는 현상이 처음 관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저널리스트 전문직주의의 특징이라 하겠다. 오랫동안 프랑스의 저널리스트 전문직주의는 정치 영역과의 공통점인 엘리트적 속성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언론인들의 ‘독립성’ 가치를 보장하는 제도적·규범적 장치들을 완성해 가면서 형성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현재 미디어 산업 자체의 대형화와 디지털화라는 외부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더 이상 과거의 정체성을 공유하기 어려운 (새로운 세대의) 저널리스트 집단의 경제적·규범적인 분열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매체의 서로 다른 규모와 성격, 직업 환경에 따라 매우 판이하게 나타나는 저널리즘 실천은 프랑스 전문직 저널리즘의 제도와 규범이 사실상 내부적으로 더 이상 공유되기 어려운 이념적 가치임을 보여주고 있다.

2. ‘언론(인)’에 대한 불신의 역사적 경험

이러한 저널리즘의 역사적 변화 과정에서 대중들의 언론(인)에 대한 불신 역시 구조화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프랑스 저널리즘의 역사적 전통 속에서 ‘언론에 대한 불신’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관찰된다. 하나는 지식인들이 오랫동안 저널리즘 자체를 경시해 왔던 전통, 둘째는 정치적 좌파들이 미디어 시스템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집중적으로 비판하였던 전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세기적 현상으로 특히 강화되고 있는 대중들의 저널리스트에 대한 부정형적인 분노라는 형태이다. 앞의 두 가지가 앞서 언급한 카시아프의 20세기 프랑스 저널리즘 각각의 역사적 단계에 대응하는 형태에 가깝다면, 마지막에 거론된 대중의 분노 혹은 저항은 전적으로 새로운 글로벌 정치 지형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드골 시대’는 역사적으로 지식인 집단이 저널리즘 활동 그 자체에 대해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던 유럽 지성사의 엘리트주의 전통이 여전히 두드러졌던 시대였다(Broesma, 2020). 어떻게 보면 이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대한 이들 지식인들의 거부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Kunelius, Baisnée & Splendore, 2020). 계몽주의 이후 오랫동안 (고급) 지식의 전파 및 전달 수단이었던 책이라는 매체가 특권화되었던 만큼 ‘과학과 사유를 통속화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저널리즘의 영역은 그 자체로 경멸받아 마땅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1789년 대혁명과 같은 정치적 격변의 시기에 처음 정립되었던 의견 저널리즘(opinion journalism)의 전통에 내재된 정치적 극단주의와 그 표피성(superficiality)으로 인해 그러한 경멸감은 한층 클 수밖에 없었다(Lévrier, 2019)⁴. 당시의 비판이 언론사 조직보다는 언론인 개인을 향

4) 흔히 인용되는, 1843년 작가 발자크가 저널리즘을 일컬어 ‘시대적 질병(une maladie chronique)’이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인식을 집약한 것이다(Balzac, 1843/1999).

한 것도 이러한 조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늘날 관점에서 이는 다소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20세기 전반기에는 대다수의 서구 철학자나 지식인들이 공유하였던 관점이었다(프랑크푸르트학파나 하이데거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는 1980~90년대 프랑스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대립 속에서도 여전히 계승되었다. 부르디외가 1996년에 발표한 <텔레비전에 관하여(Sur la télévision)>는 그런 면에서 이 전통의 대표적인 현대적 버전이다. 그는 여기서 텔레비전은 어떤 복잡한 사유의 표현도 불가능한 매체라고 단언한다. 텔레비전은 그가 1970년대 프랑스의 고급문화 취향의 계급 간 불평등에 관해 수행한 연구에서도 경제적·문화적 자본을 갖추지 못한 ‘하층계급’이 향유하는 대표적인 문화소비의 매체로 지목된 바 있다. 더불어 이 책은 발표 직전인 1995년 겨울의 대과업-소위 ‘불만의 겨울’-당시에 불거진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새로운 저널리즘 비평이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주류 지식인들의 무의식 속에는 미디어와 저널리즘 전반이 여전히 ‘멀리해야 하는’ 존재라는 경멸 의식이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중적으로는 20세기의 급격한 기술 발전과 소비사회의 풍요로운 삶을 겪으면서 이러한 태도가 급속히 사라졌다. 특히 1960~70년대의 대대적인 정치 투쟁의 시대에 들어 언론 비판은 거대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뉴스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라는 성격을 뚜렷하게 띠게 된다. 더불어 프랑스 사회의 자본주의적 현대화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던 미디어 산업 자체가, 거대 기업이 자신들의 사업 유지를 위한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언론사를 소유하는 과정 속에서 크게 성장하게 된다(Ferenczi, 1993). 이제 지식인들에게 언론(산업)이란 그 자체로 정치권력과 자본과의 결탁, 그리고 지배계급의 사회적 부패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프랑스의 저널리즘은 제도적으로 자신의 토대를 점차 확립하

는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 나갔다. 이미 1935년에 제정된 언론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언론인들에게 ‘민주주의적 기능’을 수행할 것을 의무로 명시한다. 이들 언론인들의 역할은 유권자인 (신문) 독자들을 올바른 선택으로 이끄는 것으로, 곧 이러한 역할이 언론인이라는 직업으로 하여금 법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만드는 이유라는 것이다. 1945년 종전 이후 프랑스 언론계의 부역자에 대한 ‘숙정(épuración)’ 조치가 대중적인 환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또 드골에 의한 비상조치들-부역 언론사 폐간 및 몰수 재산의 재분배, 정부 차원에서 언론인 프레스카드의 전반적인 재정비, 공동배급제의 신설 및 강력한 시장 규제 등이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삼는다. 노란 조끼 운동 당시 언론사 건물을 ‘습격’한 시위대가 ‘언론인, 부역자들(Journalistes, Collabos)’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것도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을 환기시키는 담론적 차원의 행위였다(Montvalon, 2019). 이 시기에는 또한 프랑스 정부가 언론사에 대한 대안적 소유 제도를 끊임없이 실험하면서 언론사들이 언론 산업을 소유한 외부 자본(산업자본, 은행, 투자 펀드 등)에 대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하였다.

3. 언론 불신의 대중적인 폭발 : ‘엘리트’ 언론인에 대한 분노 혹은 ‘증오’

지금까지 언급한 역사적 전통은 사실 오늘날 대중들이 특정 언론사나 언론인 전반에 대해 분노하고 이들을 직접적인 ‘증오’의 대상으로 삼는 과정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중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매 시기마다 언론에 대해 그리 신뢰하지 않음을 꾸준히 표현해 왔다. <르몽드> 편집장 출신의 저널리즘 연구자인 토마 페렌치(Thomas Ferenczi)의 언급처럼 “적어도 19세기 말엽 이후 저널리스트가 가장 존중받을 만한 직업이 된 이후에도 비판은 결코 그

친 적이 없다”(Ferenczi, 1993). 그렇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오늘날의 현상을 진단하면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도입, 소셜 미디어의 확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중들이 직접 새로운 ‘대안적 공론장’을 건설하려는 충동을 표출하였던 과정을 연속적인 사건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Blandin, 2019). 여기에는 오랜 비판의 역사적 경험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인식 역시 내재되어 있다. 대중들은 기술을 무기로 ‘기성 미디어’에 대한 대결 의식을 한층 고조시켜 왔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언론에 대한 비판은 주로 아래의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왔다.

- ① 기성 미디어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활성화라는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 ② 기성 미디어를 대표하는 ‘엘리트 언론인’들은 정치·경제 엘리트들과 사실상 한 몸이며, 따라서 시민들의 일상적 현실과는 완전히 괴리되어 있다
- ③ 기성 미디어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이처럼 ‘날선’ 비판의 중심에는 현장 언론인과 연구자, 대중들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현대적인 변화의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우선 특정한 자본에 의해 지나치게 독점화되어 있는 프랑스 뉴스 산업의 특성은 실제로 프랑스 언론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이슈이다(Sedel, 2020). 미디어 소유 구조의 독점 현상과 이에 따른 ‘자본 권력에 종속된 언론’이라는 이미지는 사실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도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지만, 프랑스에서 뉴스 수용자들이 느끼는 것만큼 직접적인 수준은 아니다(진민정, 2020).

동시에 반드시 언급해야 할 사항은 바로 과거 ‘엘리트’로 스스로를 인식하였던 저널리스트 집단의 내적 분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상층 정규직 엘리트 언론인’과 ‘뉴스 노예들(les forçats de l’info)⁵⁾’ 사이의 분열인 것이다. 뉴스를 직접 생산하는 일선 기자들은 사실상 ‘언론계 스타’들의 그림자 속에서 일하지만 어떤 안정된 지위나 고용을 확보하지 못한 ‘불안정한 저널리스트(les journalistes précaires)’에 불과하다(Sedel, 2020). 저널리즘 산업의 전반적인 독점화, 경제적 종속,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언론인 직종의 내적 분열은 이들의 작업 현장에서 취재 방법과 뉴스 생산의 작업 관행에 그대로 반영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저널리즘 퀄리티의 급속한 저하로 표출된다(Cagé, 2019). 그 결과 확산된 언론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언론 불신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작동한다.

“최근 주요 언론사 기자 직종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사주에게 돈을 벌여주기 위해 비열하게 행동하는 직군’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미디어 자체가 정치경제적으로 소위 재벌과 같은 권력에 매여 있는 상황이다. 언론사에 속한 유명한 앵커와 기자들이 있지만 이들은 권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식의 보도를 많이 한다. 때문에 시민들이 미디어를 불신하는 경향이 심해졌다. 프랑스에서는 ‘주흐날롭(journalope, journaliste+salope, 기자+매춘하는 사람을 뜻하는 비속어)’이라는 말이 한국 ‘기레기’처럼 쓰이기도 한다”⁶⁾.

5) 프랑스어 ‘forçat’는 원래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죄수’라는 뜻이다.

6) 프랑스 전국기자노동조합(SNJ, Syndicat National des Journalistes) 대외협력담당 부위원장 도미니크 프라달리(Dominique Pradalié)와의 인터뷰(<미디어오늘>, 2019).

IV. ‘노란 조끼’ 운동과 저널리즘 신뢰도

1. 새로운 사회운동의 형태 : BLM과 ‘노란 조끼’

역사적으로 사회운동은 당대 저널리즘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는 저널리즘 연구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특정 사건(event)을 다루는 지배적인 보도 방식과 이로부터 유래한 지배적인 프레임, 이 두 요소가 사건을 규정하는 지배적인 사회적 담론을 좌우하는 국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Molotch & Lester, 1974).

2020년 이후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다양한 인종 갈등을 둘러싼 보도는 이러한 디지털 생태계가 변화시킨 사회운동에 대한 보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저널리즘 신뢰도 추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2020년 5월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한층 격화된 ‘BLM(Black Lives Matter)’ 운동이 대표적이다(Pierre-Louis, 2020). 사건 당시의 미국 저널리즘의 보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시위 혹은 사회운동 자체가 여전히 미국 사회의 현존 질서(status quo)를 해치는 요소라는 관행적인 인식이 작동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시위대의 대의(Cause)가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언론이 기피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Kilgo, 2020; Cohn & Quealy, 2020). 미국 언론이 여전히 인종적 갈등, 이민자의 권리, 환경 등의 이슈에서 ‘드라마적이고 비관습적인(dramatic and unconventional)’ 뉴스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저항 운동의 폭력적인 모습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사회운동의 정당성을 박탈하는 보도 관행을 유지한다는 진단도 이어진다(Kilgo & Harlow, 2019).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대목은 사건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디지털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시위 현장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공유하는 경험이 누적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뒤

늦게 도착하여' 지나치게 '경찰의 뒤에 서서' 사건을 바라보기만 했던 기성 저널리즘의 보도 관행에 대한 시민들의 누적된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Harlow, Kilgo, Salaverria & Garcia-Perdomo, 2020). 주류 저널리즘에서 관행화되다시피 한 이러한 '사회적 저항에 대한 보도 패러다임('저항 패러다임(protest paradigm)')(Boyle, McLeod & Armstrong, 2012)은 사회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하는 경험을 가진 시민들에게는 저널리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2020년 미국의 BLM 운동은 그런 면에서 다른 사회운동과는 차별적인 성격을 가진다 하겠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대중들의 '사회적 저항'에 대한 기성 저널리즘의 관점 자체를 전복시키도록 함으로써 '언론 신뢰도의 추락'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런 면에서 2020년 BLM 운동은 그보다 1년 전에 있었던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노란 조끼 운동은 2018년 11월 엠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정부가 추진하였던 새로운 사회 개혁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소외 계층이 봉기한 '반란'의 성격을 뚜렷하게 가진다. 이 운동은 직접적으로는 정부의 연료비 인상에 항의하는 트럭 운전자들의 저항에서 시작되었다. 2018년 11월 17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노란 조끼(gilet jaune)', 그러니까 도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표식으로 사용되는 작업복을 단체로 착용하고 일부 주요 도로의 원형 교차로(rond-point)를 점거하면서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내걸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시위는 제2막(acte 2, 시위가 벌어진 두 번째 토요일)인 11월 24일에 샹젤리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운동으로 진화하기 시작하였고, 4번째 토요일(12월 8일)에는 모든 직종에 걸친 무제한의 총파업 선언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시위는 이후 무려 7개월 동안이나 매주 토요일에 계속되었다. 이 운동은 2019년 3월 30일(20번째 토요일)에 정

부가 상젤리제에서의 시위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면서 차츰 불꽃이 잦아 들기 시작하였고, 그해 5월에는 일부 주도 세력이 유럽연합 의회 선거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내부 분열과 함께 마무리 국면으로 향하게 되었다(Allain, 2019).

이 운동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운동의 성격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운동의 양태에 관한 것이다. 우선 이 운동의 성격에 대한 지배적인 설명은, 개혁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주변부 노동 계층 내에 누적된 사회경제적 불만과 좌절이 분노의 형태로 표출되었다는 해석이다(Fillieule, Hayat & Monchatre, 2020). 이는 사실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프랑스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문제이다. 이 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사회적 단절(fractures sociales)’(Michaud, 2016), 그러니까 글로벌화된 엘리트 및 특권층, 그리고 주변부 계층(중산층, 중하층 임금노동자, 불안정 노동자) 사이의 뚜렷한 구분이 이후 노란 조끼 운동의 강력한 배경으로까지 작동한 것이다. 이는 차츰 2010년대 중반의 일련의 선거를 거치면서 소위 ‘정치적 단절(fractures politiques)’(Peugny, 2014), 즉 ‘높은 분들과 낮은 계층’, ‘사회 지도자와 민중’의 엄격한 구분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노란 조끼 운동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데 관여한 무작위의 사회 지배층, 사회적 엘리트들을 핵심적인 ‘적대 세력’으로 설정하게 된다. 알리미와 랑베르(Halimi & Rimbart, 2019)는 노란 조끼 운동 세력이 내걸었던 슬로건 속에 명시된 ‘적대 세력’을 분석한 결과, 정부, 고위 관료, 기업가, 지식인, 저널리스트, 보수 우파 및 온건 좌파들이 이에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다. 또한 사회학자 브루노 라투르(Latour, 2019)의 지적처럼, 시위대는 마크롱을 “부자들의 대통령(Président des riches)”로 여기며 자신들은 ‘주변부 프랑스인’, ‘프랑스의 내부 이민자들’이라고 표현한다. 여기에는 단지 현재의 불안에 대한 매우 강력한 사회적 르상티망

(ressentiment social)만이 작동한 것은 아니다. 이 시위는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미래가 불투명한 주변부 노동 주체들이 가진 사회적 좌절감이 어떤 정치인에게도 또는 어떤 언론에게도 이해받거나 다루어지지 않는데 대해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는 특성을 강하게 가진다(Mercier, 2019).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이 운동의 양태이다. 이 운동은 어떤 형태로든 블루컬러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한 저항인 만큼, 사회운동의 ‘레퍼토리’ 역시 기성 운동보다는 훨씬 직접적, 물리적, 폭력적 형태를 취하였다. 동시에 이 운동은 2010년대 이후 글로벌 차원에서 관찰되는 새로운 조직과 표현 방식이 결합된 사회운동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2012년 뉴욕의 점거 운동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직접 행동(direct action)’ 혹은 ‘길거리 정치(street politics)’라고 명명하였던 운동들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Ancelovici, Dufour & Nez, 2016). 아울러 여기서는 계란 던지기, 침 빨기, 폭죽 터뜨리기와 같은 원초적인 저항의 표현들과 함께 경찰을 향한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발차기, 주먹질, 몸싸움)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Baisnée et al., 2021).

2. 노란 조끼 운동과 프랑스의 저널리즘 : 신뢰도 추락의 주요 요인들에 대한 평가

‘노란 조끼’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히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 대목은 이들 시위대와 프랑스 언론(인)들의 정면충돌 양상일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기성 미디어가 정치권력과 밀착해 있고, 엘리트 저널리스트들과 엘리트 정치인들이 이해와 비전을 공유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는 비판에서 확산되었다(Aubnas, 2018) 지나치게 일반화한다면 이는 ‘엘리트에 대한 불신’으로 집약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는 현

장 저널리즘의 실제 작동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관찰에 의거한 것이기도 했다.

김호원·최윤선(2019)의 연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리베라시옹>과 <르피가로>의 노란 조끼 운동 관련 전체 보도(각각 3,735개 및 1,070개)에 사용된 어휘들의 빈도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양 언론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용어가 ‘저항 운동(mouvement contestataire)’, ‘폭력 운동(mouvement violent)’ 그리고 ‘경찰 폭력(violence policière)’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운동의 성격이 애당초 명확한 지도부와 이념을 가지지 않은 채 자생적으로 출현한 ‘봉기(insurrection)’ 혹은 ‘폭동(emeute)’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는 점, 따라서 이들의 폭력적 시위와 이를 둘러싼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문제가 보도에 가장 많이 반영되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취재 현장에서 대중들의 기자들에 대한 적대감은 매우 컸고, 그리하여 이들에게 물리적 공격까지 행해진 것에 대해 프랑스 언론계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언론인 스스로가 성찰을 하기 시작했다. 일간지 <리베라시옹>은 2019년 1월 18일자 기사(Lefilliâtre, 2019)에서 25명(8명의 편집국 책임자 포함)의 서로 다른 지위와 세대의 프랑스 현직 언론인들의 ‘자기반성’을 5천 단어 분량으로 담아내기도 하였다. 이 기사는 프랑스 대중들의 언론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이미 ‘불신’이라는 단어를 넘어서 ‘분노(colère), 혐오(détestation) 나아가 증오(haine)’에 까지 이르렀다고 진단한다. 여기서 프랑스 저널리즘의 구조적인 배경에서의 작업 관행, 보도 윤리 문제 등이 문제시되었다. 운동 초기인 2018년 11월의 프랑스 주요 언론사 보도 프레임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자들은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Sebbah et al., 2018).

- 중앙 언론사들이 지나치게 사안을 파리 중심으로 보도하였다
- 사건의 구조적 배경보다는 표면적인 이유(신설 유류세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였다
- 사실 보도보다는 의견 전달을 훨씬 중시하였다
- 현장 취재보다 클릭 수나 시청률 높이에 전념했다
- 복잡한 사안을 진영논리에 기대어 단순화시켰다

이에 대한 세부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요한 대목은 결국 ‘제대로 된 보도’의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도 품질이 모든 측면에서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 저널리즘 산업이 오늘날 직면한 문제인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의 대두에 따른 쟁점들이기도 하다. 2010년대 이후 소위 ‘디지털 혁신’이 프랑스에서도 본격화되면서 프랑스 언론계 역시 디지털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진민정, 2017). 그 과정에서 방송(특히 복수의 뉴스채널)은 현장 취재 프로그램보다 다양한 패널들이 등장하는 대담 프로그램에 훨씬 많은 방송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클릭 수 확보를 위한 ‘저비용 정보(low-cost information)’(Cagé, 2018)들을 양산하고 있다. (지금은 없어진) 뉴스채널 i-télé의 전직 언론인의 증언처럼 “뉴스 채널들은 공장일 뿐이며, 기자들은 <르몽드>는 물론 해외 유수의 신문들을 읽어 볼 시간도 없이 속보를 전하는 데 만족하고 있을 뿐”(Lefilliâtre, 2019)인 것이다. 대표적인 디지털 대안 매체인 <Rue89>의 보도 책임자 놀웬 르 블렌베넥(Nolwenn Le Blenvenec)의 언급처럼, 현장 생방송 중심으로 구성된 새로운 디지털 뉴스 포맷이 점차 확산되면서 언론사가 스스로 이용자 수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오디언스[의 숫자]가 신뢰도와 일치한다(Audience égale confiance)”는 새로운 닷에 걸려 버린 점 역시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다. 디지털 생태계에

서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소위 ‘디지털 저널리즘 종사자’들이 취재에 나서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AFP 통신의 단신을 그대로 옮겨 적거나, 유력 정치인이나 저명인사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린 발언을 (분석하는 대신) 단순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는 점도 광범위한 비판을 받는 보도 행태였다(Delorme, 2019). 이런 환경에서 예비 언론인들의 산실인 저널리즘 스쿨에 가 보면 “도서관이 텅텅 비어 있고, 배우는 거라곤 카메라를 다루거나 편집 같은 기술적인 강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 모든 비판들은 저널리즘의 퀄리티, 나아가 저널리즘의 진정성과 정당성을 더 이상 호소하기 어려운 국면에 프랑스 언론계가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Cagé, 2018).

둘째, <리베라시옹>의 자기 성찰에서 우리는 언론인에게 가해진 유례없는 공격이 결국 프랑스 언론계의 오랜 구조적 문제였던 언론인들의 사회적 동질성(uniformité sociale)과 이에 따른 다양성(diversité)의 결여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반성적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Lefilliâtre, 2019). 실제로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프랑스 언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지나치게 중상층 출신, 파리 중심, 엘리트 친화적인 사회적 배경을 가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이 실제 보도 과정에서 “서민과 노동자들보다 엘리트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데 급급”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 방송위원회(CSA)가 매년 프랑스의 뉴스 및 각종 시사 정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취재원의 비율을 실증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의 경우 뉴스에 등장한 취재원의 88%가 사회경제적으로 상층에 속한 것으로 나온다(CSA, 2019). 이러한 배경에서 특히 ‘파리 중심적’인 프랑스의 (전국) 언론사들이 과연 얼마나 충분히 대중들에게 자신의 문을 개방하고 있는지는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처럼 프랑스 언론계가 사회경제적 상층 엘리트 집단에 관심을 기울였을 뿐, 이들 중하층 사회계급에 대해 취재 관심을 거의 보여준 적

이 없다는 점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던 순간은 바로 노란 조끼 운동의 보도 시기였다. 정치학자 올리비에 필리올과 동료들(Fillieule, Hayat & Monchatre, 2020)은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이 ‘노란 조끼’라는 공통의 기호 아래 프랑스 사회의 무수히 많은 계급·계층·지역적 이해가 표출되고 있는데, 이들이 언론에 의해 그저 ‘분노하는 군중’의 이미지로 뭉뚱그려져서 표상되고 있는 점이 대중의 보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낳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나아가 프랑스의 영화 전문지 <카이에 뒤 시네마>의 편집장인 평론가 스테판 들로름(Delorme, 2019)은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언론의 보도 속에서 “엘리트들과 무관한 집단에 의해 시작된 사회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discrédit)은 (...) 문장 곳곳에 드러나는 경멸적인 인식의 표현들”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리베라시옹>의 ‘자기반성’ 기사는 “많은 기자들이 스스로를 대중들(des petits gens) 위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나를 매우 놀라게 했다”(Lefilliâtre, 2019)라는 증언과 “여기엔 문화적인 문제가 있는데, 기자들이 너무 자주 자신들을 지식인으로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 대중들이 우리를 증오할 만하다”라는 증언을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프랑스 언론계가 전반적으로-물론 개별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상대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사회 운동에 관한 취재 자세를 매우 큰 폭으로 줄이고 있었으며, 보도 방식 역시 점차 동질화되어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ouillard et al., 2020).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현장 기자들은 노란 조끼 운동과 같은 커다란 사회운동에 직면하여 이에 참여한 대중들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 불안정한 노동 실

- 7) 물론 정도 차이는 분명히 있었고, 이는 프랑스 언론계의 오랜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김호원·최윤선(2019)은 예컨대 11차 토요일(2019년 1월 27일) 시위에 대한 <리베라시옹>과 <르 피가로>의 보도를 비교하면서, 진보 성향의 언론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생기를 부여하는 개별화된 보도 방식을 통하여 노란 조끼 시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보도를 행한 반면, 보수 성향의 언론은 “시위 참가자들을 집단화/익명화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시위대와 거리두기 전략을 사용”하였다고 분석하였다.

태, 시위대가 공유한 ‘르상티망’을 공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취재 경험이 없던 인력이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Collectif d’enquête sur les Gilets jaunes⁸⁾, 2020).

셋째, 취재 현장에서 작동하던 작업 관행이 특정한 보도 경향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Shin, Kim & Kang, 2022). 프랑스 저널리즘의 내부적인 여러 관행적 요소들이 이러한 불신을 일으킨 직접적 배경임을 지적한 연구들이 적지 않다. 올리비에 베스네와 동료들(Baisnée et al., 2021)의 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무엇보다 ‘사건의 유례없는(atypique) 특성’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익숙한 어떤 보도의 관행을 참조 근거(reference)로 삼을 수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폭력의 분출’과 같은 탈정치적인 프레임들이 전면에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한다. 아옌거(Iyengar, 1991)의 유명한 정식화를 원용한다면, 폭력이 바로 이 사건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에피소드적 프레임(episodic frame)’이 되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탈정치적·에피소드적 프레임’은 그 자체로 현장을 지키던 시민들, 나아가 현장의 대안적 저널리스트(이른바 ‘스트리트 리포터’ 혹은 ‘미디어 활동가(medi-activist)’)의 관점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Baisnée et al., 2021). 대표적인 보도 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 취재 현장은 프랑스 언론계의 일상적인 관행에 의해 이들 시위대와 유사한 계층을 취재한 경험이 거의 없는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 전국적인 시위에 관한 전국 일간지들의 현장 리포트는 대체로 당

8) ‘노란 조끼 운동에 관한 조사 집단’은 해당 연구를 진행한 총 31명의 국내외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세운 이름이다. 구체적인 거명은 생략한다.

일 AFP 통신 보도의 제목과 주요 프레임을 거의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 보도 내용의 1차 정보원은 대체로 시위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었다
- 당시 주요 언론의 보도는 대체로 시위대의 폭력에 주목할 뿐 시위대가 제기하는 정치적 이슈들을 별달리 다루지 않는, 매우 ‘비정치적(apolitique)’인 관점을 따르고 있었다
- 제도권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취재 현장에서 시민들의 전략적인 취재 거부로 이어졌다

우선 여기서 보도의 주요한 프레임이 공식적인 정보원에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또 AFP 통신의 보도에 대한 의존도 역시 매우 높았다는 점은 여러 가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이슈이다. 부분적으로 이는 운동 자체의 특성상-과거의 사회운동과는 달리-공식적인 운동의 지도부와 대변인을 찾기 어려웠던 ‘디지털 동원형 사회운동’의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기인한다(Bendali, Challier & Della Sudda, 2019). 다시 말해 저널리스트의 일상적인 작업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들 기자들이 여러 대안적인 목소리를 취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도의 틀을 구성하는 작업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Baisnée et al., 2021). 명확한 중앙 지휘부가 없는 사회운동, 나아가 일반적인 정치 운동을 상징하는 다양한 레퍼토리 도구들-현수막, 노래, 깃발, 손팻말 등-도 없이 오직 참가자들이 착용한 노란 조끼 등에 부착된 짧은 문장의 표식만으로 그 운동의 성격을 파악해야 했던 것이다(Fillieule, Hayat & Monchatre, 2020). 한마디로 현장 기자의 입장에서 “누구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어야 할지”를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 취재 내용의 틀을 구성하는 데 있어 혹시 모를 ‘위험을 감수’하

기 위해 의도적으로 외부적 준거에 의존하는 경향”(Pilmis, 2014)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초부터 노란 조끼 운동 자체가 기성 정치권이나 사회운동 세력의 조직적인 개입과 참여와는 무관하게 대중적인 분노의 표출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하겠다. 이는 일상적인 사회운동의 취재 과정에서 즉각 파악할 수 있는 운동 주체의 특성과 이념적 성향, 정치권과의 관계와 같은 일련의 취재 패러다임이 별달리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몰로치와 레스터(Molotch & Lester, 1974)가 언급한 바 있는 ‘지배적 루틴을 정당화하기(justify the qualificative routine)’의 과정에서 도출되는 ‘의미의 최초 규정자’의 역할이 사실상 정지되었던 상황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필리올과 동료들(Fillieule, Hayat & Monchatre, 2020)의 언급처럼, 그 취재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시위 현장에서 생방송을 하던 미디어 활동가들, 특히 기성 미디어에 대해 몹시 비판적인 대안적 ‘길거리 저널리스트’ 그룹에게 넘어가게 된다.

시위대가 보여준 물리적 폭력에 대한 언론의 과도한 주목 역시 대중들의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불신으로 이어진 중요한 고리라고 할 수 있다. 사회운동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폭력적 측면이 강조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오랜 역사를 가진 현상이며 반드시 프랑스에만 한정되는 현상도 아니다. 1970년대 영국의 사회운동에 대한 보도 분석을 통해 스튜어트 홀과 동료들(Hall et al., 1978)은 이미 거리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태에 내재된 정치적 의미를 반영하지 않는 보도들이 일반적으로 특정 갈등 사안을 단순한 ‘폭력 사건’, 즉 ‘사회 일탈적인 범죄적 행위’라는 의미 이상의 관점을 가지지 못하게 만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란 조끼 운동의 과정에서도 시위 도중의 각종 채물(상점, 유리창, 도로 시설 등) 파괴 현상에 이어, 이를 진압하려는 공권력과의 물리적 충돌(최루탄, 저항 폭력, 시위대 연행 등)이 빈번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를 취재하는 저널리스트들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적대적 언

어, 물리적 공격) 역시 두드러졌다(Baisnée et al., 2021). 이처럼 프랑스 언론의 보도는 시위대의 폭력에 대해 극단적으로 주목하면서, 그것이 지닌 정치적 의미를 간과하는 매우 ‘비정치적(apolitique)’인 모습을 보였다. 폭력 행위 속에서 시위대의 모든 요구 사항은 아무런 중요성도 가지지 않는 사회적 목소리로 다루어질 뿐이었고, 시위대 자체가 그저 사회적 일탈 행위자들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Pichonnaz, 2013). 깨진 유리창이나 경찰에 대한 물리적 공격과 같은 장면들이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이거나 스펙터클한 방식으로 연출되어 보도된 것도 이러한 구조적 맥락과 필연적인 관계를 가진다.

3. 언론 불신의 양상의 진화 : 소셜 미디어를 통한 ‘불신의 재생산’

이 과정은 또한 시민들 역시 언론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표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기성 언론의 취재에 대해 불응하거나 거부하면서 언론 불신 태도를 조직적, 집단적으로 확산시킨, 즉 악순환 형성의 과정이었다는 점도 언급되어야 한다. 자신들의 시위에 대한 보도에서 폭력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부각되는 현실로 인해 한층 불신이 커졌다는 점은 여러 지점에서 공통으로 지적되고 있다(Souillard et al., 2020). 특히 시위들에게 가장 ‘적대적’인 매체로 인식된 방송뉴스채널 BFMTV의 기자들은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의 ‘표적’으로 지목받았고, 그리하여 해당 방송사 기자들이 카메라나 신분증 등에서 자사 로고를 제거하지 않으면 취재가 불가능했다는 증언도 적지 않았다(Baisnée et al., 2021).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대목은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 기성 언론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의 정서가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노란 조끼 운동의 경우와 같이, 기성 언론의 보도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높을수록 디지털 공간을 중심으로 기성 언론의 지배적 프레임에 대한 대항 서사(counter-narrative)가 생산되고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Greffet & Wojcik, 2014; Harlow et al., 2020). 이 점은 다수의 연구들이 기성 언

론의 ‘탈정치적’ 프레임과 대비되는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의 적극적인 정치적 목소리에 주목하면서 충분히 검토한 바 있다(Hyun, 2018).

시위가 벌어진 세 번째 토요일(2018년 12월 1일)을 기점으로 소셜 미디어에서 ‘노란 조끼’ 운동에 관한 다양한 계정들이 개설되어 활동하기 시작했다. 개설 이후 2개월 동안 약 37만개의 포스팅이 올라온 페이스북 계정 <분노한 프랑스(La France en colère)>라든가, 개설 이후 팔로워가 200만명에 이른 계정 <노란조끼(giletsjaunes)> 등이 대표적이다(Souillard et al., 2020). 그 외에도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 동안 ‘노란조끼’ 해시태그(#giletjaune)를 단 트윗은 230만개에 이르렀다. 언론학자 아르노 메르시에(Arnaud Mercier)는 시위 참가자들의 페이스북 그룹⁹⁾에서 수집한 다양한 증언들을 토대로 이 시기의 ‘언론 불신’의 양상을 검토했다. 그에 따르면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메시지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Mercier, 2019. 11. 15).

- “[언론이]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직하지 않다. 운동이 백만장자들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 이들은 마크롱의 친구들이다.”
- “물류 트럭의 파업을 놓고, 언론은 4일간 주구장창 교통체증 이야기만 한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종주의자, 파괴자라 칭한다.”
- “지난 토요일 시위는 평화롭게 행진하고 노래하고 외치고 춤췄다. 그런데 어떤 미디어도 그걸 보도하지 않는다. 아무 폭력이 없었으니, 그들이 관심이 없었다”.
- “TV는 정말 끔찍하다. 모든 게 조작되어 있다. [시사 토론 프로그램

9) 가장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그룹은 다음 4개이다. ‘La France en colère’, ‘LesGiletsJaunes’, ‘GiletJaune’, ‘★Gilet Jaune★’.

램에 출연한 패널들이] 노란 조끼 운동에 대해 던지는 질문이나 토론 내용은 멍청하기 그지없다. 모든 게 프로파간다이다.”

이와 같은 원색적인 비난에 이어, 기성 언론에 대한 조직적인 보이콧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시작된다. 이는 특히 신문보다는 방송, 그 중에서 서도 가장 시청률이 높은 뉴스전문 채널이자 운동에 가장 적대적인 두 채널인 BFMTV와 CNews를 향한 시청 거부로 이어졌고, 더 나아가 “프로파간다의 송출 자체를 가로막자”는 보다 직접적인 행위 전략으로 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이는 보도는 물론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운동을 적대시하는 언론 전체를 향한 보이콧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Sebbah et al., 2018). 이 과정에서 개별 언론인 개인들을 향해 ‘기레기(journalopes des merdias)’라는 직접적인 욕설이 가해지거나, ‘기레기’들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해시태그가 확산되었다.

- “#너희가 바로 가짜뉴스(#C’est vous les Fake news)”
- “#너희가 사람들을 썩게 만든다(#Vous pourrissez le peuple)”
- “#우리는 너희를 원치 않는다, 꺼져라(#On veut pas de vous, dégagez)!!”

취재 일선의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향한 적대적인 의사 표시이자 상당수가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이 발언들에 대해 대체로 ‘자신들의 개인적 존엄성과 직업적 존엄성을 존중해 달라’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태도 자체도 또 다른 조롱과 공격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 “이 쓰레기들이 울고 있어도, 아무도 그들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는 앓을 거야”

- “내가 화날 때마다, 이놈들은 기가 막히게 내 분노 게이지를 더 올리는 재주가 있네”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프랑스 저널리즘의 신뢰도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2018~19년의 ‘노란 조끼’ 운동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대중들의 저항적 서사와 결합된 매우 극단적인 분노 표출의 계기였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단순히 프랑스 언론의 사회운동에 대한 ‘편파 보도’ 및 이에 대한 분노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더불어 이는 앞서 언급한 프랑스 저널리즘의 제도적 변화와 역사적 경험이 언론(인)에 대한 (증오에 가까운) 분노로 집약되게 만드는 경로로 기능하고 있음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이는 한편으로는 ‘노란 조끼’ 운동이 21세기의 글로벌화된 디지털 사회운동의 속성을 가진다는 측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변화한 양상을 사실상 포착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해화된 프랑스 저널리즘의 내적 작업 관행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중들의 직접적인 개입과 실천이 서로 맞물린 형태라는 측면에 다시금 주목하게 만든다.

V.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전 세계적인 언론의 신뢰도 하락이라는 상황에서, 한국 언론과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프랑스 언론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일차적으로 2018년부터 시작된 ‘노란 조끼’ 운동이라는 거대한 사회운동의 과정에서 프랑스 언론에 대한 불신은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이를 단순히 외부 충격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제를 프랑스 언론이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던 역사적 과정 및 이에 대한 대중들의 오랜 ‘언론에 대한 비판’의 과정이라는 측면과 결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먼저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간행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 나타난 프랑스 언론의 신뢰도의 양적 지표를 검토해 보았다. 이어 프랑스 저널리즘의 역사적·제도적 형성 과정 및 이에 발맞추어 등장한 대중적 불신의 역사적 경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2018년 사회운동에 대한 보도 과정에서 노출된 현재 프랑스 언론의 구조적 위기·경제적 위기, 디지털 전환과 경쟁 심화, 퀄리티 저하가 실제 뉴스 생산의 작업 과정에 미친 영향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이 연구는 프랑스 언론을 향한 외적 충격(사회운동의 영향) 못지않게, 저널리즘 제도 내부적인 균열의 다양한 양상들이 최근 프랑스 언론의 신뢰도 추락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오늘날의 프랑스 저널리즘이 보여주고 있는 신뢰 위기의 핵심적인 요인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구조화되었던 프랑스 저널리즘의 제도적 차원과 내적 실천의 문제임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던 프랑스 저널리즘의 전문직주의적 특성은 근본적으로 20세기를 관통하는 ‘정치성’의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 및 극복의 과제와 직결된 문제이다. 그렇지만 20세기의 끝 무렵에 시작된 시장 상황의 악화, 디지털화에 따른 구조적 변동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또 다른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저널리즘의 장 전체를 이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노란 조끼’ 운동에 대한 보도의 과정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랜 역사적 유산과 충돌하면서, 프랑스 언론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정당성의 기제들에 대한 치명적인 위기 상황을 불러 일으켰던 중대한 사건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언론 신뢰도의 하락이라는 현실적인 쟁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낮은 저널리즘 모델과 역사를 지닌 프랑스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오늘날 한국 언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비교 분석을 위한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프랑스와 유사한, 혹은 프랑스보다 훨씬 치열한 시장 위기와 경쟁, 디지털 전환의 노력과 그 어려움, 그리고 고질적인 정파성 문제와 정치권력과의 모호한 관계라는 요인들은 사실 한국 언론의 신뢰도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핵심 요인들에 해당한다(배정근 외, 2021). 그런 면에서 한국 언론 역시 자신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뉴스 생산을 직접 담당하는 현장 종사자는 물론, 수용자들이나 관련 연구자들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할 시점에 도달해 있다. 그 실천을 누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수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 언론의 현실과 역사적 전통,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나아갈 방향을 일차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고찰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직접 특정 언론사의 보도 현황, 뉴스 생산의 구체적인 프로세스,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여론 확산의 실질적인 과정에 대한 실제 경험적인 연구를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그렇기에 이를 직접 수행한 연구자들의 다양한 연구 결과 및 증언들을 근거로 삼아 프랑스 사회에서 언론 신뢰도 하락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의 주요한 담론들을 추적하는 방식의 연구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이는 이 연구의 가장 결정적인 결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직접 연구의 결여라는 한계 속에서도, 이 연구가 해당 주제에 대한 논의를 한층 진전시킬 수 있는 출발점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김호원·최윤선. (2019). ‘노란 조끼’ 시위에 대한 프랑스 미디어 보도 분석: 비판적 담론 분석의 관점에서. *불어불문학연구*, 119: 215-242.
- 박아란·이소은. (2020).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 한국*.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배정근·박진우·오현경. (2021). *언론 신뢰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접근*.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오현경. (2022). 언론 신뢰도의 개념적 고찰. *언론과 사회*, 30(1): 99-132.
- 이소은·오현경. (2021). 매체, 언론사, 주제별 뉴스 이용과 언론에 대한 평가 이용자 정치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5(2): 241-285.
- 진민정. (2017). 미디어 외교의 주체, 글로벌 뉴스 채널의 딜레마, *분석과 대안*, 1(2): 13-30.
- 진민정. (2020). 프랑스도 마주한 언론 불신의 시대. *미디어오늘*. (2020. 7. 29).
- Allain, P.-H. (2019). Témoignages: Gilets jaunes, un an après. “J’ai toujours la rage de me battre, et pas seulement pour moi”. *Libération*. (https://www.liberation.fr/france/2019/11/15/gilets-jaunes-un-an-apres-j-ai-toujours-la-rage-de-me-battre-et-pas-seulement-pour-moi_1763743/).
- Ancelovici, M., Dufour, P., and Nez, H. (eds.). (2016). *Street Politics in the Age of Austerity: From the Indignados to Occupy*.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 Anthéaume, A. (2019). When the pressure becomes too great: Why so many french journalists are quitting the profession. *European Journalism Observatory*. (<https://en.ejo.ch/newsroom-management/when-the-pressure-becomes-too-great-why-so-many-french-journalists-are-quitting-the-profession>).
- Aubnas, F. (2018). ‘Gilets jaunes’, la révolte des ronds-points. *Le Monde*. (<https://www.lemonde.fr/societe/article/2018/12/15/sur-les-ronds-poi>

- nts-les-gilets-jaunes-a-la-croisee-des-chemins_5397928_3224.html).
- Baisnée, O., Cavé, A., Gousset, C., and Nollet, J. (2021). La violence de s Gilets jaunes: Quand la fait-diversification fait diversion. *Sur le Journalisme*, 10(1). [online], (<https://revue.surlejournalisme.com/slj/article/view/452>).
- Balzac, A. de. (1843). *Les Journalistes : Monographie de la Presse Parisienne*.
- e. 지수희 (윤희김). (1999). *기자의 본성에 관한 보고* 서울: 서해문집.
- Bendali, Z., Challier, R., and della Sudda, M. (2019). Le mouvement des Gilets jaunes: un apprentissage en pratique(s) de la politique? *Politix*, 128: 143-177.
- Blandin, C. (2019). Les trois visages de la détestation des journalistes. *La Revue des Médias*.
- Bourdieu, P. (1994). L'emprise du journalisme.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101/102: 3-9.
- Bourdieu, P. (1996). *Sur la télévision*. Paris: Raison d'agir.
- Boyle, M. P., McLeod, D. M., and Armstrong, C. L. (2012). Adherence to the protest paradigm: The influence of protest goals and tactics on news coverage in U.S. and international newspaper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7(2): 127-144.
- Broersma, M. (2020). Americanization, or the rhetoric of modernity. How European journalism adapted US norms, practices and conventions. in Arnold, K., Preston, P., and Kinnebrock, S. (eds.). *The Handbook of European Communication History (403-419)*.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Brulé, F. (2019). CheckNews : La confiance des Français dans les médias est-elle à son plus bas historique?. *Libération*. (<https://www liberation.fr/checknews/2019/06/26/la-confiance-des-francais-dans-les-medias>)

-est-elle-a-son-plus-bas-historique_1736079/).

- Cagé, J. (2018). *Le Prix de la démocratie*. Paris: Fayard.
- Cohn, N. and Quealy, K. (2020). How public opinion has moved on Black Lives Matter.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06/10/upshot/black-lives-matter-attitudes.html>).
- Collectif d'enquête sur les Gilets jaunes. (2019). Enquêter in situ par questionnaires sur une mobilisation. *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 69(5), 869-892.
- CSA (2019). *Baromètre de la diversité de la société française: Vague 2019*. Paris: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 Delorme, S. (2019). Les médias n'ont pas été à la hauteur du mouvement des gilets jaunes. *Libération*. (https://www.liberation.fr/france/2019/01/18/les-medias-n-ont-pas-ete-a-la-hauteur-du-mouvement-des-gilets-jaunes_1703957/).
- Fillicule, O., Hayat, S., and Monchatre, S. (2020). Trois regards sur le mouvement des 'Gilet jaunes'. *La Nouvelle Revue du Travail*, 17. [online], (<https://doi.org/10.4000/nrt.7377>).
- Gerbaud, D. (2013). La presse française en manque d'une instance déontologique. *Pouvoir*, 147: 65-77.
- Greffet, F. and Wojcik, S. (2014). La citoyenneté numérique. *Réseaux*, 184/185: 125-159.
- Halimi, S. and Rimbart, P. (2019). Lutte de classes en France. *Le Monde Diplomatique*, février 2019.
- Hall, S., Clarke, J., Critcher, C., Jefferson, T., and Roberts, B. (1978). *Policing the Crisis: Mugging, Law and Order and the State*. London: McMillan.
- Hanitzsch, T., van Dalen, A., and Steindl, N. (2018). Caught in the nexu

- s : A comparative and longitudinal analysis of public trust in the pres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23(1): 3-23.
- Harlow, S., Kilgo, D. K., Salaverria, R., and Garcia-Perdomo, V. (2020). Is the whole world watching? Building a typology of protest coverage on social media from around the world. *Journalism Studies*, 21(11): 1590-1608.
- Hyun, K. (2018). The Role of Political Agreement and Disagreement of News and Political Discussion on Social Media for Political Participation, *Analyses & Alternatives*, 2(2): 31-66.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aciaf, N. (2013). *Les pages 'politiques'. Histoire du journalisme politique dans la presse française, 1946-2000*. Rennes: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 Kantar/La Croix (2022). Baromètre des médias 2022: la confiance des Français au plus bas. *La Croix*. (<https://www.la-croix.com/Economie/Barometre-medias-2022-confiance-Francais-bas-2022-01-20-1201195923>).
- Kilgo, D. K. (2020). Riot or resistance? The way the media frames the unrest in Minneapolis will shape the public's view of protest. *Nieman Lab*. (<https://www.niemanlab.org/2020/05/riot-or-resistance-the-way-the-media-frames-the-unrest-in-minneapolis-will-shape-the-publics-view-of-protest/>).
- Kilgo, D. K. and Harlow, S. (2019). Protests, media coverage, and a hierarchy of social struggl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24(4): 508-530.
- Kunelius, R., Baisnée, O., and Splendore, S. (2020). Professionalisms and journalism history : Lessons from European Variations. in Arnold, K.,

- Preston, P., and Kinnebrock, S. (eds.). *The Handbook of European Communication History (351-366)*.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Latour, B. (2019). Les Gilets jaunes sont des migrants de l'intérieur, quittés par leur pays. *Reporterre, le quotidien de l'Écologie*.
- Le Bohec, J. (2000). *Les mythes professionnels des journalistes*. Paris: L'Harmattan.
- Lefilliâtre, J. (2019). Gilets jaunes: les médias au stade autocritique. *Libération*. (https://www.liberation.fr/france/2019/01/18/gilets-jaunes-les-medias-au-stade-autocritique_1703959/).
- Leteinturier, C. & Mathien, M. (2010). Une profession fragilisée : Les journalistes français face au marché de l'emploi. *Quaderni*, 73: 97-114.
- Lévrier, A. (2019). Le journalistes, un si vieil ennemi. *La Revue des Médias*.
- Mathien, M. (2009). "Tous journalistes !". Les professionnels de l'information face à un mythe des nouvelles technologies. *Quaderni*, 72: 113-125.
- Mercier, A. (2019). Pourquoi cette haine des médias chez certains Gilets Jaunes?. *La Revue des Médias*.
- Michaud, Y. (2016). *Contre la bienveillance*. Paris: Stock.
- Molotch, H. and Lester, M. (1974). News as purposive behavior: On the strategic use of routine events, accidents, and scandal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1): 101-113.
- Montvalon, J.-B. de. (2019). Une haine qui vient de loin. *Le Monde*. (https://www.lemonde.fr/idees/article/2019/01/24/medias-une-haine-qui-vient-de-loin_5413896_3232.html).
- Peugny, C. (2014). *Le destin au berceau. Inégalités et reproduction sociale*. Paris: Seuil.
- Pichonnaz, D. (2013). Communication policière et discours sur la déviance. Une expertise marquée par des enjeux professionnels et corporati

- stes. *Politiques de Communication*, 1: 127-150.
- Pierre-Louis, K. (2020). It's time to change the way the media reports on protests. Here are some ideas. *Nieman Lab*. (<https://www.niemanlab.org/2020/06/its-time-to-change-the-way-the-media-reports-on-protests-here-are-some-ideas/>).
- Pilmis, O. (2014). Produire en urgence. La gestion de l'imprévisible dans le monde du journalisme. *Revue Française de Sociologie*, 55(1): 101-126.
- Reuters Institute (2021). *Digital News Report 2021 (10th edition)*. Oxford : Reuters Institute/Oxford University.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sites/default/files/2021-06/Digital_News_Report_2021_FINAL.pdf).
- Sebbah, B., Souillard, N., Thiong-Kay, L., and Smyrniāos, N. (2018). Les Gilets jaunes, des cadrages médiatiques aux paroles citoyennes. *Rapport de Recherche du LERASS*. 26 novembre 2018. [online], (<https://www.lerass.com/wp-content/uploads/2018/01/Rapport-Gilets-Jaunes-1.pdf>).
- Sebbah, B., Loubère, L., Souillard, N., Renard, J., and Smyrniāos, N. (2019). La dilution des Gilets jaunes dans l'agenda médiatique et politique, quand le mouvement ne fait plus événement mais tente de se consolider. *Rapport de Recherche du LERASS*. 22 février 2019. [online], (<https://www.lerass.com/wp-content/uploads/2019/02/GJ-V3.pdf>).
- Sedel, J. (2020). Tel propriétaire, tel dirigeant de presse? Une exploration statistique des liens entre actionnaires et dirigeants de médias d'information. *Politiques de Communication*, 15, 169-195.
- Shin, S., Kim, S., Kang, M. (2022). Domestic Constraints of Sino-South 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he Case of Trans boundary Air Pollution. *Analyses & Alternatives*, 6(1): 163-194.
- Souillard, N., Sebbah, B., Loubère, L., Thiong-Kay, L., & Smyrniāos, N. (2020). Les Gilets jaunes, étude d'un mouvement social au prisme

de ses arènes médiatiques. *Terminal*, 127. [online], (<https://journals.openedition.org/terminal/5631>).

Manuscript: Jun 15, 2022; Review completed: Jun 26, 2022; Accepted: Jul 12, 2022